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8)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려티브 설교 형식 계발」(공저, 대서)가 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
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
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1-2)

종종 우리들은 두 번 놀라게 되었다고 말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의 양에 한 번 놀라고 음식의 맛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는 경우에 두 번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이다. 조금은 다르지만 사데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나를 두 번 놀라게 한다.

놀라움 (1): 주님께 오직 책임만 받게 된다는 것으로

사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임만 들은 교회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이다. 너무도 좋으신 주님에게 책임만 받게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책임에 인

색하시고 칭찬에 너무나 후덕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칭찬이 제로이고 온통 책망 일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100점 맞기도 힘들지만 0점 맞기도 무척 힘든 것이다. 눈 감고 찍어도 한두 문제 정도는 거뜬히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에게 늘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어 보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다. 거기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를 액면가 그대로 살펴보면 '결점투성이' 인생들에 불과하다. 주님이 그들의 실력 그대로 점수를 주시면 모두 과락(F학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액면가 그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과락이 되지 않도록 기본 점수를 일단 70점으로 정하고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인 실례가 되는 인물이 히 11장 32절에 등장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인데, 영웅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사람 중에 '바락'이 소개되고 있다.

바락이 신앙 영웅이라고? 이러한 의아한 생각이 든다. 사사기 안에서 바락을 보면 그는 신앙의 영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이다. 잠시 사사기 4장으로 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다. 그들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900개를 가진 것과 같은 가공한 만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이러한 세력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

다.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서서 바락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명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준다. 그때 바락의 반응이 무엇인가 사 4장 8절에 나온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한마디로 그는 신앙 영웅이 아니라 쪼다이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하는가? 9절을 읽어보자. 바락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 바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웅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나가 싸운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그를 신앙의 영웅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세워 놓는다. 이 정도로 우리의 장점을 붙잡고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에게 책망만 듣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사데 교회가 바로 그 쉽지 않은 0점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자애로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정말 사데 교회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칭찬하기로 마음먹고 보면 뭐든지 칭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정 안되면 무엇이든지 칭찬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하다못해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칭찬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칭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단점이 많아도 장점 하나가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반대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가 너무도 결정적인 것이어서 장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궁금해진다. 과연 사데 교회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장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만큼 주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강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신앙이 문제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도무지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가 없다. 실상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살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살아 있을 뿐이다. 외관으로는 누가 봐도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늘 사람들의 평판 안에서만 자신을 찾는 사람들, 다른 이들 앞에서 멋진 외투를 입고, 교양을 가지고 품격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윤기가 흐르고 폼이 난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상태이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못 견뎌하신다. 사데 교회 교인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40의 나이에 늦게 갖게 된 내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몸에 살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말라서 키가 커 보이는데 늘 레깅스 같은 옷을 입고 다녀서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다. 결코 작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에서 번호가 5번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성적순이 아니라, 키 순서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이 엄마도 속상했는지 한 번은 딸에게 이렇게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주나야! 키가 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키가 커야 되는 거야”

사데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장점들을 모두 백지화 시키는 결정적인 단점의 모습을 가진 것이다. 그것은 키가 커 보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키가 작은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한 듯하지만, 실상은 추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참으로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책망만 하는 것으로 경종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살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 있는 자가 되라고...

놀라움 (2): 결정적인 단점에도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것이 첫 번째 놀라움이라면, 두 번째 더 큰 놀라움은 결정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지 칭찬이 없는 것이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구절은 바로 2절이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 죽게 된 자리에도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만을 남겨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강화시키라고 하신다. 남겨진 것을 끝까지 사수하라고 명하신다.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가는 순간에도 아직 남겨진 불씨가 있으니 그

것을 살려내야 한다. 그 불씨로 부활과 회복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겨 놓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느라,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것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다. 구약에 가인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곧 은혜와 사랑의 권면인 것인데 남겨진 은혜의 불꽃을 살려내지 못하여 패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언제나 희망의 불꽃을 남기셔서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이고 위력임을 명심하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그 어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남겨진 것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안된다. 그것만을 크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상실한 것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속상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겨진 은혜의 조치이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남겨 두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강화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중대한 사명은 남겨진 것을 붙태워 멋지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 깊은 좌절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how)에 집중시켜 보기로 하자.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본문 4-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경은 지금 사데 교회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 “흰옷 입은 자들에게 배우는 것으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흰옷을 입은 자란 사데 교회에 남기신 남은 자들이다.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한 수 배우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들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남은 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남은 자와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흰옷 입은 남은 자를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힘들어서이다. 소돔성의 멸망에서 의인 열 명이 없다. 남은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심도 깊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집중하려는 부분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것이다. 남은 자들과 교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변의 남은 자들을 발견한다고 해도(비록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를 남은 자로 여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매력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 가까이에서 만나면 남은 자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때가 있다.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사데 교회에 남은 자들도 가까이서 보면 그다지 남은 자들 같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엘리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야고보서에 보

면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엘리야는 아합의 정권 밑에서 당당하게 남겨진 사람의 대표주자이다. 자신만 혼자 남아 있다고 탄식할 정도로 남은 자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엘리야를 성경은 우리와 성정(성질과 마음씨)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사데의 흰옷 입은 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이다. 타고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겨진 자들이 아닐 수 있다. 멀리서 봐야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있다. 가까이서 보면 의인도 우리와 성정이 같기에 의인으로 여기기가 힘들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의인이 있다. 그러나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의인이 의인으로 여겨지기가 어렵다. 우리가 교제해야 할 흰옷 입은 자들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꺾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남은 자들을 귀하여 여겨야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제하고 본받아야 할 남은 자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열한 사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데 교회 흰옷 입은 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 치열하게 하나님을 추구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항변한 사람들이다.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었다고는 하나 죽은 대목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들 안에 있는 남겨진 불씨를 살려낸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비록 인간 냄새가 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자락 소중

.....키가 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키가 커야 되는 거야”

한 대목을 가진 분들을 나를 위한 흰옷 입은 자로 여기며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치열하게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한다. “나보다 남은 자를 낮게 여기라.” (빌 2:3). 나보다 남은 자를 낮게 여길 때 주변의 신앙 공동체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일깨우는 남은 자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비록 그에게 실제로 결함이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로도 나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를 내 삶을 깨우는 남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마르바 던은,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 하면서도 깊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신앙인이자, 탁월한 신학자이다. 그래서 인지, 주변 동료들을 통하여 남아 있는 것을 굳게

하는 법을 배우며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말해 준다. 마르바 던, 약할 때 기뻐하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07), 124-125.

“남아 있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왜 긴급하고 유익한지 아주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두 친구가 있다. (저자의 각주,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사지가 마비된 린든은 육체의 훈련을 통해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체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했지만 몇 년 간은 전동 휠체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몸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였다. 유일하게 기능하는 팔 그런 식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팔을 놀랍도록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었다. 지금은 요리도 하고 사진을 찍어 현상까지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코니는 남은 것들을 기뻐하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오래전 내게 나누어 주었다. 눈이 손상되는 당뇨합병증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코니는 한동안 나를 시기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그런 태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마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너무나 강렬했다고 한다. 그 음성은 그녀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었다. “괜찮다. 코니. 내가 마르바에게 준 소명은 시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네게 준 소명은 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코니는 비전 노스웨스트의 프로그램 책임자였다. 현재 그녀는 오레곤의 34개 후원모임과 5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시력 손상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튿날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발 절단수술을 받

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코니의 말이 내 귓전에서 울렸다.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코니가 후원 모임을 찾아가려면 발이 필요하지만 내가 네게 준 소명에 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코니의 깨달음은 내 눈과 머리와 타이핑 기술이 남아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책을 써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혼자서는 절뚝거리는 다리와 약화되는 시력을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실에 대해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것들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라는 도전 때문이다.“

린든과 코니와 같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남아 있는 것들을 소중히 붙잡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승리 할 수 있다. 탁월한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보잘 것 없는 린든과 코니 같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대접한다. 그들을 자신을 깨우는 친구(흰옷 입은 자)로 여기며 자신 안에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나 보다 낮게 여기려는 자세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신앙 공동체는 흰옷 입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도전과 영향력으로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